

코퍼스에 기반한 ‘-잖다’의 화행적 특성 고찰

강 현 화
(연세대학교)

<Abstract>

Kang, Hyoun-Hwa. 2009.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discourse function of ‘-canhta’. *Korean Semantic*, 2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gative expression ‘-지 않다’ and its reduced form ‘-잖다’ in terms of phonetic,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ore efficient pragmatic instruction method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In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s the corpus analys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지 않다’ and ‘-잖다’ and attempts to find their application methods in Korean language teaching.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ve frequencies of appearance of each expression in the written corpus and spoken corpus. This study also analyses their respective semantic, morphologic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e practical uses of ‘-지 않다’ and ‘-잖다’ in the cur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order and methods. This study tries to demonstrate the fact that the negative expressions can have multiple implications, and that it is necessary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to deal with this differences. In addition to the negative expressions, this study recommends the application of the commonality and dis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form and its reduced form of other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teaching.

핵심어: 화행(pragmatic), 빈도(frequency), 문어 말뭉치(written corpus), 구어 말뭉치(spoken corpus)

2 강 현 화

1. 머리말¹⁾

본고²⁾는 부정표현 ‘-지 않다’를 대상으로 하여, ‘-지 않다’와 이의 축약형인 ‘-잖다’와의 다양한 차이(출현 장르, 음운, 통사, 의미, 화행적 특성)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화행 교수의 자료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논란이 된 ‘-지 않다’와 ‘-잖다’의 차이를 문어 코퍼스와 구어 코퍼스를 분석하겠다. 먼저 이들의 빈도를 밝히고, 코퍼스에 나타난 이들의 용법을 분석하여 각각의 형태가 가지는 의미적 특성과 형태·통사적 특성, 화행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 양상에서 드러나는 ‘-지 않다’와 ‘-잖다’의 쓰임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되는 ‘-지 않다’와 ‘-잖다’의 용례를 분석하여 이들의 제시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들의 변별적 교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이 필요함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형태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지는 다양한 용법을 밝혀, 형태와 상이한 의미, 기능의 교수의 필요성을 점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부정 표현을 넘어서 본딤말과 축약형이 가지는 공통성과 상이성의 차이를 밝혀, 이들 한국어 교수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한국어교육학에서 부정 표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연구는 국어학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들은 ‘-지 않다’의 축약형과는 다른 ‘-잖다’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문법화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 먼저 정원수(1988)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지 않아’로 복원되지 않음에 주목했다. 또한 ‘있잖아요’와 같은 관용 표현은 부정의 의미가 없음에도 주목했다. 손세모들(1999)에서는 ‘-잖-

1) 이 논문은 KRF-2007-321-B00159에 의해 지원되었음

2) 본고는 제3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 발표 원고를 수정 보완함.

을 ‘-겠-, -르것이, -더-’ 등과 같은 비문말서법 형태라고 지칭하고, 문법화에 주목했다. 이현희(2004)에서는 ‘-잖-’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1가)는 부정의 문과 확인의문에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³⁾ (1나), (1다)는 확인의문에만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 (1) 가. 철수가 가지 않아?
 나. 철수가 가잖아?
 다. 철수가 가잖아 (이현희 2004 재인용)

‘-지 않다’와 ‘-잖다’를 구분하는 근거로 ‘-잖-’은 ‘-잖아, -잖니, -잖니까’의 어미에만 제한되지만, ‘-지 않다’는 모든 어미에 연결됨⁴⁾과 예문(2)에서와 같이 ‘-잖다’는 부정구어와 호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가. 철수가 결코/절대로/별로 가지 않아?
 나. *철수가 결코/절대로/별로 가잖아?
 다. *철수가 결코/절대로/별로 가잖아. (이현희 2004 재인용)

이들의 음운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재현(1999)에서는 ‘-지 않니’와 ‘-잖니’를 문말 억양으로 구분하고 문말 억양이 상승되면 부정의문이며, 문말 억양이 하강하거나 지속되면 확인의문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화행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는 ‘-잖아’의 화행적 특성에 주목한 서경희(2001)를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잖아’는 성인과 아동 사이에 주어진 학습 내용에 대해 상호 이해를 조정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주로 쓰임을 밝히고, 아동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상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사용하는 상호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상호작용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⁵⁾

3) 부정의문문이 확인의 의미기능을 가진다는 논의는 김동식(1981), 장원수(1988), 서정수(1994)에서 이미 논의된바 있다.
 4) ‘-잖-’과 결합하는 문말어미의 제약에 대한 지적은 이미 손세모(1999)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5) 서경희(2002)에서는 ‘-잖아’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화자가 새로운 주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논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 않다’와 ‘-잖다’는 축약관계인가 아니면 별개의 문법 형태인가? 즉, ‘-지 않다’와는 달리 ‘-잖다’ 뒤의 문말 어미제약은 다른가? 부사적 제약은 다른가? 등의 통사적 특성의 변별 문제이다.

둘째, ‘-지 않다’와 ‘-잖다’는 문어와 구어에서의 빈도는 다른가? 다르다면, 이는 두 문법형태가 특정 장르에만 사용됨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둘을 구분하려는 화자들의 심리적 의도에 의한 결과인가?

셋째, ‘-지 않다’와 ‘-잖다’의 의문형의 음운적 변별성에 따른 의미 차이가 있는가?

넷째, 담화상에 나타나는 ‘-지 않다’와 ‘-잖다’의 화행적 특성은 어떻게 세분되는가?

본고는 각각의 논쟁점에 대해, 코퍼스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들 선행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아울러 선행 연구가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주로 형태론이나 통사론의 관점에서 연역적인 연구로 주목받아온 ‘-잖아’에 대해, 귀납적인 코퍼스 연구(특히 구어 코퍼스)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잖아’에 대한 연구를 코퍼스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를 시작할 때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되는 입장이 있음을 전제로 함으로써 기존 주제에서 새 주제로의 전이과정이 수반될 수 있는 체면위협행위의 가능성을 약화시켜준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사용하며 청자와 공유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거나 합의된 여론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셋째,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 행위맥락에서 화자의 의견을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하여 청자를 논박하고 설득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3.1 말뭉치를 통한 문형 분석⁶⁾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말뭉치는 두 부류이다. 문어말뭉치는 세종 말뭉치를 사용했으며, 구어말뭉치는 세종 말뭉치 외에 필자가 추가로 보충하였다. 세종 말뭉치는 대규모 자료이므로 균형성을 담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구어 말뭉치의 경우에는 세종 말뭉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⁷⁾ 세종 말뭉치 중의 구어 말뭉치는 양도 적은데다가 실제 검색 결과 목표 문형의 사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어 말뭉치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였다. 구어 말뭉치는 다양한 하위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나머지 부류들은 세종 말뭉치에 기대고 드라마나 영화 대본 자료만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드라마나 영화 대본은 흔히 준구어 말뭉치로 불리는데, 이는 일상 대화를 전제로 쓰였지만 작가에 의한 비실제적인 자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⁸⁾ 본 연구에서 추가로 구성한 구어 말뭉치 드라마와 영화 대본은 드라마 52편, 영화 56편이다. 실제 드라마는 52편이지만 한 편의 드라마

6) 최근 필자는 별개의 문법형태들을 대상으로 같은 코퍼스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방법론 부분은 선행 연구와 중복됨을 밝힌다.
 7) 구어말뭉치의 구축 내용은 대화(공적 37%-방송/비방송, 사적 32%-일상대화/전화대화)와 독백(공적 29%-방송/비방송, 사적 2%-동화 영화 드라마 경협담)로 구성되어 있다.
 8) 본고가 준구어 말뭉치를 구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일상적 대화 말뭉치는 전사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략과 도치와 같은 구어적 특성이 두드러지므로 연구 대상이 되는 문형을 찾아내는 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준구어 자료를 통해 대화의 전형적(typical)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작가는 대사의 작성에 있어 실제 대화의 형태로 기술하면서도 독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창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전형적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제 대화보다 표현의 전형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대본의 특성상 대사에 앞서 괄호나 지문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발화의도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발화와 발화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본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상황이나 장면이 반영되어 있어 대인적 상호작용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기능을 살피는 데에 적절하다. 하지만 구어 대화 말뭉치에 비해 실제성의 정도가 떨어지고 여전히 작가 개인의 개인 방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 말뭉치의 일반 구어 말뭉치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 일일 드라마, 미니 시리즈, 주말 드라마 등 연속물이기 때문에 총 52편의 드라마 1,228회 대본이다.⁹⁾ 이에 세종의 구어코퍼스를 더해 본고에서는 총 7,013,918어절의 말뭉치를 사용했다.

[드라마 대본] 반올림, 반올림2탄, 반올림3탄, 학교2, 학교3, 카이스트, 군세어라 금순아, 고맙습니다, 메리대구공방전, 아들과 딸, 연애시대, 커피프린스 1호점, 환상의 커플, 귀여운 여인, 궁, 그린로즈, 네 멋대로, 마왕, 불꽃, 황금사과, 하얀거탑, 케세라세라, 최강 울엄마, 찢의 전쟁, 오 필승 봉순영, 건빵선생과 별사탕, 가을동화, 겨울연가, 삼순이, 울인, 파리의 연인, 이 죽일 놈의 사랑, 달자의 봄, 장밋빛인생, 여우야 뭐하니, 연인, 피아노, 폴하우스, 호텔리어, 불새, 옥탑방고양이, 첫사랑, 해바라기, 햇빛 속으로, 눈사람, 토마토, 네 자매 이야기, 마지막전쟁, 비단꽃향무, 변호사들, 이브의 모든 것, 비밀

[영화 대본] 하루, 미녀는 괴로워, 백만장자의 첫사랑, 나의 결혼 원정기, 극락도살인사건, 그 해 여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설탕, 사랑 따윈 필요 없어, 그녀를 믿지 마세요, 청춘만화, 괴물, 그놈은 멋있었다, 거룩한 계보, 질투는 나의 힘, 댄서의 순정, 폰, 신부수업, 8월의 크리스마스, 공동경비구역JSA, 광석이 동생 광태, 국화꽃향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동갑내기 과외하기, 말아톤, 선물, 선생 김봉두, 쉬리

가능한 주제가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주제의 드라마를 정했고, 등장인물도 세대별로 10대~60대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였으며, 직업 및 지위를 고려하고자 했다. 시대별로 80년대~현재까지 방영했던 드라마, 영화를 선정하였다. 또한 특정한 의사소통의 기능은 발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로 삼은 모든 준구어 자료에 대해 출연하는 인물의 관계 정보를 조사하였다.¹⁰⁾

9) 현대 구어 양상에 주목하기 위해 사극이나 시대물은 배제하였다.
 10) 동일한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세월의 변천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거나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3.2 한국어 교재 및 사전 분석

3.2.1 한국어 학습용 문법사전에서의 기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잖다’는 따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는 ‘-지 않다’의 축약형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문법 항목 중 해당 문형에 대한 설명을 분석해 보자.

(가) 이희자·이종희(1999) 『한국어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잖아: 말하는이가 듣는이에게 자신의 말이 맞지 않느냐고 상기시키면서 핀잔하듯이 말하는 것을 나타냄

예)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직도 비가 오잖아요.

(나) 서상규 외(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잖아(어미): 이미 말한 사실이나 청자가 알고 있다고 믿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쓴다.

예) 거 봐, 좋잖아. 이렇게 하나까/내가 뭐랬어? 비가 온다고 했잖나?

(다)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잖아: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정정해 주듯이 말함을 표현. 듣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거나 혹은 상대방이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잘 모르고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이 정정해 주거나 알려 주듯이 말함을 나타냄

예) 그분은 내일 오시잖아./ 그러기에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기존의 일반사전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정표현 ‘-지 않다’의 축약형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용 사전에서는 이를 별개의 문법형태로 인식하여 ‘확인, 정정, 핀잔’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문법 사전들 역시 ‘-잖다’는 다양한 활용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잖아’만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한국어 교재 분석

아래는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부정과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한 것이다.¹¹⁾ 색깔을 달리한 문형들이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는 문형들이다. 주로 1,2,3급의 초급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도표는 교재에서 독립적인 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교재명	단원	문형	출처
K_U_YS_11_L01	8	부정 의문문	문법
K_U_SU_11_L01	5	N-은/는 V-지 않습니다	문법
K_U_SU_11_L01	6	N-이/가 A-지 않습니다	문법
K_U_KP_12_L01	19	V,A-잖아요	문법과 표현
K_U_KR_11_L02	16	V,A-지 않겠습니까?	기본문형
K_U_SU_11_L02	25	V,A-지 않아요?	문법
K_G_IE_11_L02	15	V,A-잖아	문법 및 표현
K_U_HUFS_11_02	9	V,A-잖아요	GRAMMAR NOTE
K_U_KH_12_L03	3	V,A-잖아요	문법
K_U_KR_11_L03	2	V,A-잖아요	기본문형
K_P_KE_11_L03	10	V,A-잖니	문법
K_G_IE_11_L04	4	V-지 않을 수 없다	문법 및 표현
K_U_SM_11_L05	3-2	A-지도 않고 A-지도 않다	문법연습
K_P_LF_12_L01	13	V,A-지 않아도 되다	문장 배우기
K_P_LF_12_L01	15	V-지 않으면 안 되다	문장 배우기
K_P_MJ_11_L02	1	별로 V,A-지 않다	조금 더 알아봅시다
K_U_EH_12_L01	14	V-지 않아도 되다	준비합시다 Activities
K_U_SU_11_L04	35	여간 V,A-지 않다	문법과 표현
K_G_IE_11_L04	11	V-지나 않았으면 좋겠는데...	문법 및 표현
K_G_IE_11_L05	4	V-는 것이 A-(이)지 않을까요?	문법 및 표현
K_P_MJ_11_L02	4	그리 -지 않다/못하다	조금 더 알아봅시다
K_U_SM_11_L03	1-2	여간 A-지 않다	문법
K_U_SM_11_L03	2-1	N-이어서 V-지 않으면 안 되다	문법
K_U_SM_11_L03	3-2	여간 A-(으)ㄴ N-이/가 아니다	문법
K_U_SM_11_L03	3-2	V,A-지 않으면 안 되다	문법
K_U_SM_11_L03	3-2	(반드시) V,A-지 않으면 안 되다	문법

11)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에서 추출한 문형들이다. L다음의 숫자는 급을 의미하며, 음영처리가 없는 부분은 부정문으로만 사용된 경우이다.

K_U_SM_11_L05	3-1	그다지 A-지(는) 않다	문법연습
K_U_SM_11_L05	5-1	V-(ㄴ/았/였)다지/N-(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법연습
K_U_SU_11_L02	13	별로 V,A-지 않다	문법
K_G_IE_11_L05	9	N 못지않다	문법 및 표현

교재에서 제시한 문형들을 통해 한국어 교재에서는 ‘-지 않다’와 ‘-잖아’의 구별이 다양한 교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잖아, -잖니’ 등도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교재에서는 ‘-잖아’의 다양한 특성들을 인식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까? 문형으로 제시한 목록 외에 한국어교재의 본문이나 연습문제에 활용된 ‘-지 않다’나 ‘-잖다’가 포함된 예문 검색을 통해 제시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잖다’는 총 127개의 예문이 출현하였는데, 1급부터 5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읽기 교재에도 출현하는데, 서술형과 의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예문들은 단순히 확인을 구하는 예문부터 다음 얘기를 이끌기 위한 담화적 기능을 가진 예문, 동의를 구하거나 비난이나 못마땅함 등을 드러내는 다양한 화자의 발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재에 ‘-잖아’에 대한 명시적인 문형 제시는 없는 경우에도 예문에서는 이들에 대한 난이도 고려 없이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잖다]

- 한국어회화1(1999) 다음 주 월요일부터 ___시험이잖아___ .
- 한국어회화1(1999) 다음 주에 연극 공연이 ___있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1(1999) 오랫동안 비가 안 ___왔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1(1999) 다른 사람들도 안 ___가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1(1999) 내가 며칠 전에 얘기해 ___주었잖아___ .
- 한국어회화1(1999) 너 얼마 전에 용돈 받았다고 ___했잖아___ .
- 한국어회화1(1999) ‘어, 그리고 보니 오늘 ___일요일이잖아___ .
- 한국어회화1(1998)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듣는 등 마는 등 건성으로 ___대답하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1(1998) 다음은 네 ___차례잖아___ .
- 한국어회화1(1998) 너도 알다시피 민회가 남다른 데가 ___있잖니___ ?
- 한국어회화1(1998)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___했잖아___ .
- 한국어회화1(1998)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___하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1(1998) 그리고 보니 우리도 전에 심하게 다툰 적이 ___있잖아___ .
- 한국어회화1(1998) 응, 부모님은 몇년 전에 ___돌아가셨잖아___ .
- 한국어회화1(1998) 나를 만나면 항상 화부터 ___내잖아___ .
- 한국어2(연대(1999)) 일이 너무 ___많잖아요___ ?
- 한국어2(연대(1999)) 여기 노란 선이 ___있잖아요___ ?
- 한국어3(연대(1999)) 왜 ___있잖아___, 그 잘 생긴 가수말야 …… .
- 한국어3(연대(1999)) 여행을 하니까 기분 전환이 ___되잖아요___ ?
- 한국어3(연대(1999)) 대화를 하면 오해가 ___풀리잖아요___ ?
- 한국어3(연대(1999)) 시험이 ___끝났잖아요___ ?
- 한국어3(연대(1999)) 벌써 많이 ___마셨잖아요___ ?
- 한국어3(연대(1999))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다는 말이 ___있잖습니까___ ?
- 한국어3(연대(1999)) 그 일을 반대한 사람은 우리뿐이 ___아니잖아___ ?
- 한국어3(연대(1999)) 그 사람 집은 ___가깝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거긴 애들이나 가는 ___데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경수 씨는 언제나 ___자신만만했었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다툼으로 해서 더 친해질 수도 ___있잖아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인물은 선명하지만 색깔이 ___누렇잖니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지난 번에 만났을 적에 ___말했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성격이 ___나쁘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어머 ___중호 씨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시험이 이걸 ___너무하잖아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그렇다고 굶고 살 수는 ___없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백지장도 맞들면 ___натда잖아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공부 열심히 ___했잖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지금도 면허증만 없지, 운전 잘 ___하잖아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살이 쪼면 건 ___사실이잖아___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아니 글썽, 그 녀석이 나를 보고 돼지라고 놀려 ___대잖아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돈 좀 있답시고 사람을 ___무시하잖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 그런데 오늘이 손 없는 날이라고 꼭 오늘 이사해야 ___한대잖아___ .
- 한국어4(연대(1999)) 글썽, 이걸 먹으면 병이 금방 ___났는대잖아___ .
- 한국어4(연대(1999)) 집 주인이 이번 주말까지 집을 비워야 ___한대잖아___ .
- 한국어4(연대(1999))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___한대잖아___ .
- 한국어4(연대(1999)) 수도 공사 때문에 내일 하루 종일 단수가 ___된대잖아___ .
- 한국어4(연대(1999)) 신청서를 내려 갔는데 벌써 ___마감됐대잖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 선생님도 참, 여자가 먼저 말을 할 수는 ___없잖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 가족이 모두 건강하니 다행이고 할 일이 있으니 ___즐겁잖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 밋건 굵건 그는 우리 ___친구잖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 그래야 누가 올 건지 몇 명이나 올 건지 알 수 ___있잖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 제가 재미있을 거라고 ___했잖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___했잖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 변하는 것이 꼭 나쁘달 수야 ___없잖니___ ?
- 한국어4(연대(1999)) 보세요 , 여기 제 이름이 ___있잖습니까___ ?
- 한국어4(연대(1999)) 예 , 가을은 날씨가 좋고 게다가 먹을 것도 ___많잖아요___ .
- 한국어읽기(2000) 먼저 인간이 되는 것이 ___중요하잖아요___ .
- 한국어읽기(2000) 교회하면 그런 것도 ___없잖아요___ . "
- 한국어읽기(1999) 물이 반밖에 안 ___남았잖아___ .
- 한국어읽기5-(1999) 그런 데 가면 남자분들 경제적인 협조를 얻기가 ___쉽잖아요___ ?
- 한국어읽기5-(1999) 부장 찾아 봐두 ___없잖아요___ .
- 한국어읽기5-(1999) 여보 집에 그냥 들어가긴 뭐가 ___섭섭하잖아___ ?
- 한국어읽기5-(1999) 환경 아 아가 한삼이한테 전화받는 것두 ___보셨잖아요___ .
- 한국어읽기5-(1999) 사람을 못 살게 ___굴잖아요___ .
- 한국어읽기5-(1999) " 엄석대가 , 급장이 와 보라고 ___하잖아___ ? "

‘-지 않다’는 총 3350개의 예문이 나타났으며, 역시 1급부터 5급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나타난 예문 역시 단순히 확인을 구하는 예문부터 다음 얘기를 이끌기 위한 담화적 기능을 가진 예문, 동의를 구하거나 비난이나 못마땅함 등을 드러내는 다양한 화자의 발화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않다]

- 한국어회화1(고대(1999)) 설렁탕이 좀 싱겁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영진 씨 배 고프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한국 생활이 힘들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머리 아프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시험 어렵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아니요 , 어렵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부모님이 보고 싶지 ___않았어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선생님도 오시지 ___않았어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어제 영진씨랑 만나지 ___않았어요___ ?
- 한국어회화1(고대(1999)) 아침에 혹시 수미씨가 전화하지 ___않았어요___ ?
- 한국어회화(1999) 한국 생활이 힘들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999) 가족이나 친구가 보고 싶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999) 회사일이 힘들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999) 너무 곱슬거리는 것 같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999) 약속 시간에 늦지 ___않았어요___ ?
- 한국어회화(1998) 저런 , 다치지지는 ___않았니___ ?
- 한국어회화(1998) 여기 너무 더럽지 ___않니___ ?
- 한국어회화(1998) 그 냉장고 너무 크지 ___않니___ ?
- 한국어회화(1998) 춥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1998) 살 빠니까 어지럽지 ___않니___ ?
- 한국어1(연대(19999)) 월요일 아침에는 바쁘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1(연대(19999)) 김치는 맵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1_서울대(문진미디어(19999)) 애니 씨가 전화하기로 하지 ___않았어요___ ?
- 한국어1_서울대(문진미디어(19999)) 미나 : 저한테 좀 크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1_서울대(문진미디어(19999)) 앤디 : 너무 달지 ___않아요___ ?
- 서강한국어1/위크북_(하우(19999)) 엄마 요리 솜씨가 일품이지 ___않니___ ?
- 한국어2(연대(19999))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좋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2(연대(19999)) 단어를 먼저 공부하는 게 쉽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2(연대(19999)) 먼저 손슨 씨에게 물어보는 게 좋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2(연대(19999)) 먼저 숙제를 끝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그렇다고 점심까지 굶어 가면서 할 수는 없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세 사람이 먹기엔 좀 모자라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4급 학생들이 읽기엔 좀 어렵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혼자 하기엔 좀 힘들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거기 사람이 많지 ___않던가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월부로 사면 오히려 귀찮지 ___않던가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지 ___않습니까___ ?
- 한국어4(연대(19999)) 그 감독의 의도는 영화의 끝부분에 잘 나타나 있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4(연대(19999)) 어제 점심을 사 주신다는 말씀 잊지 ___않으셨죠___ ?
- 한국어4(연대(19999))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인데 너무 색이 야하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졸리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저 소리 시끄럽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4(고대(1998)) 오늘 날씨 너무 춥지 ___않아요___ ?
- 한국어회화5(본문/고대(9)) 민희한테 미안하지도 ___않아요___ ?

실제 대화문이나 문법 연습에 나타난 예문들을 살펴보면 ‘-지 않다’와 구별되는 ‘-잖다’의 특성은 인지했으나, 이를 체계적인 교수요목의 형태로 반영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재에 명시적인 문형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매우 다양한 ‘-잖다’의 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난이도 고려 없이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예문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잖다’라는 문형에 대한 명시적인 제시가 없는 교재가 많다는 점에서는 이에 대한 교재 편찬자의 인식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4. ‘-잖다’의 특성

‘-지 않다’와 ‘-잖다’는 어떻게 구별되며, 이들의 변별성이 어떻게 교재에 제시되어야 할까를 살펴보기 위해, 이 절에서는 코퍼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문형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개별 문형에 대한 분석의 범위는 먼저 빈도 정보 및 말뭉치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 화행적 특성을 차례로 살피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는 모두 코퍼스에 근거한 것이다.

4.1 말뭉치별 출현 빈도

먼저 해당 문형의 빈도 정보 및 말뭉치의 장르별 특성을 살펴보자. 아래 도표를 볼 때, 구어 말뭉치에서는 ‘-잖다’의 빈도가 현저히 많음에 비해, 문어 말뭉치에서는 ‘-지 않다’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 않다	빈도	-잖다	빈도
문어말뭉치	59826	83%	2601	10%
구어말뭉치	12454	17%	22749	90%
합계	72280	100%	25350	100%

<표 1> 말뭉치별 출현 빈도

하지만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잖다’의 예문은 대부분 문어 안에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삽입된 구어체 대화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문어에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지 않다’는 부정의문, 재확인, 동의구함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형태·통사적 특성

다음은 형태·통사적 특성이다. 선행 용언은 동사, 형용사, ‘이다’ 모두 결합이 가능하며 서술, 감탄, 의문에만 사용된다. 말뭉치에 나타난 예문을 살펴볼 때 결합하는 후행 문말어미는 ‘-지 않다’의 경우 후행 문말어미가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함에 반하여, ‘-잖다’는 ‘-지 않다’에 비해 다소 제약이 되었다.

- -지 않다: -지 않아, -지 않습니다, -지 않니?, -지 않는다, -지 않답니다, -지 않겠네요, -지 않나요, -지 않겠지, -지 않았지, -지 않을래?, -지 않을까요?, -지 않을게
- -잖다: -잖아, -잖습니까?, -잖니?, -잖수, -잖고, -잖나?, -잖냐?

결합하는 선행 어미는 ‘-지 않다’의 경우에는 ‘-었-’과의 결합이 많았고, ‘-잖다’의 경우에는 ‘-었-’과 함께 ‘-는다고 하잖아’가 축약된 ‘-는다잖아’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두 문법형태가 모두 사용되는 서법은 평서문과 의문문, 감탄문에 사용되며 서법에 따라 고정된 꼴만 나타나거나 의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않다		-잖다	
	형태	의미	형태	의미
평서문	-지 않습니다 -지 않아요	부정	*-잖습니까 -잖아요	(1)확인을 통한 강조 (2)새 정보 제시
의문문	-지 않습니까? -지 않아요? -지 않니?	(1)부정의문 (2)확인문의 (3)동조구함 (4)확인을 통한 강조 (5)못마땅함, 비난	-잖습니까? -잖아요? -잖니?	(1)확인문의 (2)동조구함 (3)확인을 통한 강조 (4)못마땅함, 비난

감탄문	*-지 않습니까? *-지 않아요?		*-잖습니까? -잖아, -잖아?	혼잣말의 형태로 깨달은 사실 드러냄
-----	-----------------------	--	----------------------	---------------------

<표 2> ‘-지 않다’, ‘-잖다’의 형태와 의미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을 나타낼 때는 축약형인 ‘-잖아(요)’꼴로 거의 사용되지는 않으므로 아래 (3)과 같이 부정과 어울리는 부정극어와 ‘-잖아(요)’는 함께 사용되면 어색하다. 이는 평서문과 의문문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지 않다’의 경우에도 단순한 질문을 나타내는 (4ㄴ)과는 달리, (4ㄱ)와 같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질문에는 ‘절대로’가 사용되기 어렵다.¹²⁾

- (3) ㄱ. 나는 우유는 절대/결코 먹지 않아요.
 ㄱ'. ??나는 우유는 절대/결코 먹잖아요.
 ㄴ. 우유는 절대/결코 먹지 않아요?
 ㄴ'. ??우유는 절대/결코 먹잖아요?

- (4) ㄱ. 마이클 씨, 이번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질문][확인]
 ㄴ. 마이클 씨, 이번 시험을 위해 절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질문][*확인]

‘-지 않다’와 ‘-잖다’와는 ‘부정의문(확인), 동조구함, 확인을 통한 강조’등을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실제 말뭉치 상에서는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부정의문’의 경우에는 ‘-지 않아요?’가 선호되며, ‘-잖아?’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동조, 강조’에 더 많이 사용되는 ‘-잖아’와 사용을 변별하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실제 말뭉치에 드러난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의문형으로 사용된 경우, 화자의 확신의 정도가 아래의 단계로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12) 이현희(2004)에서는 ‘-지 않아요’와 ‘-잖아’가 별개임을 부정극어 ‘절대로’와의 호응 여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 않아요’가 ‘절대로’와 호응하는 경우는 (4ㄱ)과 같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만 제한된다. 따라서 이는 ‘-지 않아요’와 ‘-잖아’의 변별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부정의문’과 ‘확인문의’ 여부의 문제이다.

단계	화자 발화의도	고빈도 문법 형태	청자 응답
	부정 서술문	-지 않다	요구 없음
	부정 의문	-지 않습니까?/않아?	청자대답 필수
▽	확인문의문(확신없음)	-지 않습니까?/않아?	청자대답 요구
▽	동조구함(재확인)	-잖습니까/잖아?	(수의적) 청자대답
▽	확신(주장, 정정)	-잖아(서술형)	요구 없음

<표 3> 화자의 발화의도별 표현 및 청자반응

다만, ‘-지 않습니까/-지 않니?’가 ‘왜, 어떻게’ 등의 의문부사와 함께 결합하여 나타나면 그것은 ‘강한 질책’이나 ‘제안’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 (5) ㄱ. 왜 그 때 떠나지 않았습니까?
 ㄴ. 왜 먹지 않니?

4.3 음운적 특성

다음은 음운적 특성에 관한 부분이다. 드라마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법 형태는 서법의 유형과 의미에 연관해서 각기 다른 특성을 보였다. 의문부호가 사용되었으나 명백한 ‘비난, 못마땅함’의 의미를 가질 때는 문말이 상승되지 않고 지속하면서 강하게 끄는 듯한 억양이 나타난다.¹³⁾

4.4 화행적 특성 및 교수 가능성

앞 절에서 ‘-잖아’는 부정의 의미가 아닌 다른 화자의 발화의도를 드러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잖아’의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교수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용례는 화자와 청자와의 공유된 정보에 대한 확인에서

13)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억양의 표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문장부호상으로는 의문문에 속하나, 다만 문말이 상승되는 다른 의문문의 억양과는 달리 나타나는 것이 주목할 만한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특별한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되는 특징이다.

확장되어 굳어진 것들로, 화·청자 관계나 문맥에서 사용된 화자의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 않다			-잖아		
	형태	음운적 특성		형태	음운적 특성	
평서문	-지 않습니다 -지 않아요	부정	하강	-잖아요	(1)확인을 통한 강조 (2)새 정보 제시	평탄 힘줄
의문문	-지 않습니다? -지 않아요? -지 않니?	(1)부정의문 (2)확인문의문 (3)동조구함 (4)확인을 통한 강조 (5)못마땅함, 비난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지속	-잖습니까? -잖아요? -잖니?	(1)확인문의문 (2)동조구함 (3)확인을 통한 강조 (4)못마땅함, 비난	상승 상승 상승 지속
감탄문	-	-		-잖아! -잖아?	혼잣말의 형태로 깨달은 사실 드러냄	지속 상승

<표 4> 화자의 발화의도별 표현의 음운적 특성

먼저 문두의 담화표지로 쓰여 화제를 도입하는 데에 사용되는 ‘있잖아’는 ‘-잖아’가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다. ‘-는 거 있잖아’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6) 채경: 전하~ 태자전하~

신: 왜? (장난스럽게) 빈궁마마.

채경: 있잖아¹⁴⁾...나 건의 사항 있는데..

신: 건의사항? 뭔데?

(7) 가: “저 자식을 그냥...”

나: “그 점이 뭔가 수상하게 느껴진다고나 할까. 왜 그런 것 있잖아, 목수 생활 10년이면 발밑에서 못들이 피해 다닌다는. 그 경우에 적용됐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잖아’의 특성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화자가 새로운 화제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때 사용된다. 손세모돌(1999)에서는 ‘-잖아’는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기술하며 아래의 예문을 제시한다. 하지만 ㄴ’에서와 같이 청자가 모

14) ‘있잖아’의 경우에는 독립된 담화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르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 ㄴ. 이거 비밀인데, 그거 돌이가 망가뜨린 거 아니야. (손세모돌, 1999)

ㄴ. *이거 비밀인데, 돌이가 망가뜨린 거 아니잖아. (손세모돌, 1999)

ㄴ’. (언니!) 이거 비밀인데, 이거 내가 깨뜨렸잖아....(엄마한테 이르지마)¹⁵⁾

이는 교재에서도 나타난다. 아래의 예들에서 ‘백을 산 사실’이나 ‘돈이 생긴 사실’은 청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8) 내가 이번에 명품 백 하나 샀잖아. 그래서 애긴데, 역시 좋긴 하더라.

내가 큰돈이 생겼잖아. 그래서 한턱내려고.

(9) 은서: (본다. 그러다 다시 짐짓 웃고) 켈 후회 되는거! 오빠가 작년 생일에 선물로 시계 준 거 있잖아. 그거 집에 그냥 두고 나왔다?

준서: (본다)

(10) 한국어회화(1999)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___시험이잖아___ .

한국어회화(1999) 다음 주에 연극 공연이 ___있잖아요___ .

둘째는 청자의 견해에 대한 확인이다. 확신이 없거나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청자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통 청자의 대답이 이어진다. 화자는 청자와의 공유감이라는 친밀감 형성을 통해 청자의 동감을 얻어내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게 된다.

(11) 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어쨌거나 난 캘리포니아로 갈 거니까.

나: 정밀 검사를 또 받아?

가: 그건 수용연대에서 이미 받았잖아?”

나: 아냐

(12) 한국어2(연대(1999) 밖이___시끄럽잖아요___ ?

15) 익명의 심사위원은 이 예문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는 화자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견해에 대해 청자가 동조해 주기를 바랄 때 사용한다. 혹은 청자가 모르는 사실이라도 화자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청자가 동의해 주기를 바랄 때도 사용한다.

(13) 경하: 은서..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선물 사고 은서 뒤편으로 케익 만들면서 설레었는데. 우리 은서가 좋아하는 치즈 케익인데..
윤교수: ... (안아준다) 설레며 좋았잖아? 그럼 된 거야.
경하: 당신도 그랬어요? 은서랑 살면서 쪽.. 좋았어요?

(14) 준서: 가만히. 유미도 가만히.
유미: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죠? 끝난 일이잖아요.
준서: ... 유미 끝난 일이야. (문 열고 내린다)

(15) 이 옷 예쁘잖아? 나한테 잘 어울려.

넷째는 재확인을 통한 강조이다. 이는 이미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청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정정을 하는 것이다. 아랫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이미 설명한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수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조언을 할 때에 사용되기도 한다.

(16) 가: 으응 그래, 참 아까 정효상이한테 뽀뽀를 쳐봤더니 깜깜무소식이더라고. 어디로 취재하러 갔나. 노형도 알다시피 요즘은 다들 바쁘잖아.
나: 뭐, 그럴 것 없이 기왕 노형한테서 나온 얘기고 하니깐 저간의 사정을 잘 알 것 아뇨? 노형이 직접 전화 취재를 해서 정효상이 이름으로 기사를 써 갖고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데스크를 봐서 넘기지 뭐.

(17) 한국어회화(1999) 다른 사람들도 안 ___가잖아요__ .
한국어회화(1999) 내가 며칠 전에 얘기해 ___주었잖아__ .
한국어3(연대(1999) 네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___낫잖아__ ?

다섯째는 청자에 대한 못마땅함이나 비난을 표현하기도 한다. 즉, 청자에

대한 비난, 짜증, 불쾌한 어감, 책임 추궁하려는, 화자의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잡고’의 형태로 쓰여 ‘충고’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평탄조로 강하게 끝맺으면서 느낌표를 동반하기도 한다.

(18) 종철: (유들유들하게) 야 너까지 이럴래? 이게 지 엄마 닮아서... (확 때리려는) 너 식당에서 빵땅치는거 내가 알아! 좋은 말 할 때 내놔!
신애: (냉정하게 본다) 누굴 도둑놈으로 몰아?! 돈 훔쳐서 가출한건 너잖아!
종철: 뭐? 이게! 이게 정말 (확 때리려면)

(19) 태석: 야 야 최은서!
은서: 뵙쇼. (가면)
태석: 뭐가 문제야? 내가 이산 게 뭐가? 이사라고 하는 일도 없이 노는 거 니가 젤 잘 알잖아?

(20) 윤교수: 생각해봐. 집안 망신이라고!
경하: 망신이라고요? (올라서)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당신 때문 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은서 두고 미국 가자 그랬잖아요.
윤교수: 여보! (신애 본다)

(21) 현우: (영애 막으며) 누나, 나가자. 나가서 나하고 얘기해.
영애: (현우 비켜 세우고 계속) 좋아하는 건 그렇다치고,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서로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2) 현우: (버럭버럭) 그러니까 내가 학교 맡는다고 했잖아!!
영애: 시끄러워!! 네가 무슨 학교를 맡아!!

(23) 정아: (잡으며) 상혁아, 왜 이래?
상혁: 이거 뵙쇼! 저 자식 때문에 유진이가 다쳤다잖아요!
정아: (버럭) 그거 아냐! 알지도 못하면 가만있어.

여섯째, 화자가 새롭게 깨닫거나 발견한 사실을 드러내는데, 이는 주로 혼잣말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청자를 전제로 한 대화에서도 사용된다.

(24) 각 찻잔마다 그림 그려진 아빠 엄마 은서와 준서.

경하: 이거 우리 식구들이잖아?

준서: 은서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25) 태인: 그건 뭐예요? 보리(뒤로 숨기는)

태인: 뭐야, 이거? 이거 술이잖아요!

(26) 한국어회화(1999) ‘어, 그리고 보니 오늘 일요일이잖아.’

이밖에 ‘-지 않다’나 ‘-잖아’와 어울려 ‘왜 -지 않습니까?’, ‘-으니 잘 됐잖아, -면 되잖아요, -어야 되잖아, -는 거잖아’, ‘그렇다고 -(으)리 수 없잖아요’ 등과 같이 덩어리 형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7) 한국어4(연대(1999) 그렇다고 교통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어4(연대(1999) 그렇다고 늘 외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어4(연대(1999) 그렇다고 사무실에 반바지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_____.

한국어4(연대(1999) 그렇다고 돈을 써서 살 수는 없잖아요.

또한 ‘-다잖아요, -는다잖아’ 와 같이 인용문의 형식을 빌렸으나, 명확한 인용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용이 아니라 청자에게 재확인을 통해 화자의 주장을 강조하는 표현도 있다.

(28) 한국어4(연대(1999) 원래 키 큰 사람은 싱겁대잖아요.

한국어4(연대(1999)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대잖아요.

한국어4(연대(1999)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몸에 이롭대잖아요.

(29)그러니깐 내가 한다잖아. 너는 안 시킬 테니까 걱정마.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2장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지 않다’와 ‘-잖다’는 축약관계인가? 별개의 문법 형태인가? 하는 문제이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의문문의 경우에는 축약관계가 유지되지만, 서술문의 경우

에는 ‘-지 않다’와 ‘-잖다’가 변별적으로 사용되며, 그 의미와 화자의 사용 의도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 한국어3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다는 말이 있잖습니까/있지 않습니까?

한국어3 그 일을 반대한 사람은 우리뿐이 아니잖아/아니지 않아?

한국어3 그 사람 집은 가깝잖아요/가깝지 않아요?

감탄문의 경우에도 ‘-지 않아’의 꼴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확인, 동조’의문문에서는 ‘-잖아’의 사용이 함께 ‘-지 않아’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형태가 완전히 별개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문말어미가 제약되는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귀납적 사용의 결과일 뿐, 해당 문말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통사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상황이 주어진다면 드러나지 않은 문말어미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개의 형태라기보다는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한국어교수 현장에서는 혼잣말과 서술문의 ‘-잖아’의 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앞선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지 않다’와는 달리 ‘-잖다’ 뒤의 문말어미는 제한되는가? 이들의 부사적 제약은 다른가? 등은 문말어미의 제약은 ‘-잖아’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이는 주로 친밀한 화청자 간에 사용되는 구어에서의 사용 제약으로 인한 차이이며, ‘-잖다’가 특별한 제약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사의 제약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사적 변별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지 않다’와 ‘-잖다’는 문어와 구어에서의 빈도는 다른가? 혹시 다르다면, 이는 장르별로 고정된 형태만이 사용되는가? 아니면 두 문법형태를 구분하려는 화자들의 심리적 구별인가? 의 문제는 확연한 빈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화자들의 심리적 변별 노력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준구어 말뭉치는 문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다.

넷째, ‘-지 않다’와 ‘-잖다’의 의문형의 음운적 변별성에 따른 의미 차이가

있는가? 라는 부분은 두 문법형태 사이의 변별적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법에 따라 서술문과 감탄문에서는 하강, 의문문에서는 상승 억양을 보이고 있으나 의문문의 경우에도 ‘비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상승 억양이 아닌 평탄의 지속 및 끝기가 이루어지므로 서법별, 의미별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담화상에 나타나는 ‘-지 않다’와 ‘-잖다’의 화행적 특성은 새로운 화제 도입, 비난 및 충고, 동조구하기를 통한 친밀감 형성 등의 다양한 화행적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 않다’와 ‘-잖다’는 통사적으로 독립되는 형태라고 구분 짓기는 어려우나, 화자의 심리적 변별의도로 인해 언어수행 상에서는 구분되어 사용되며, 축약표현인 ‘-잖다’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담화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이 한국어교육에서 가지는 효용성을 무엇일까? 개별 문형의 화행적 특성을 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Eli Hinkel(2001:434)에서는 화행 교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반면, Tanaka(1997)는 고급 학습자일지라도 화용 능력의 습득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김하수(2004)에서도 한국어교육학의 제반 구성 요소를 논하면서 화용론은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교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상황 연출, 맥락을 통해 2차 효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개별 화행을 가르쳐야 하는 문제는 학습자의 요구와 교수자의 판단에 기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형 교수와 연관된 화행적 특성은 해당 문형의 담화맥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명시적인 교수든 예문의 형식이든 이러한 화행적 특성을 교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며, 적어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앞선 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 않다’와 ‘-잖다’와 관계된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형 제시의 순서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코퍼스의 빈도 및 교수의 난이도에 근거한 것이며,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그 순서나 교수의 필수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1)의 부정을 제외하고는 (2-6)의 경우에는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부정표현과 구분하여

교수하여야 한다. 의미 기능별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적 제약이 있거나 서법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유의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유형별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교재 편찬자는 위의 단계의 표현들을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단계별 제시 방안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기능	문법형태	서법	비고
1	부정	‘-지 않습니다, -지 않아요’	서술문/의문문	안 V (단형부정)과 연계하여 교수
2	확인 및 동조 구하기	‘-지 있습니까?, -지 않아요?, -잖아요?’	의문문(상승)	
3	확인 및 주장	‘-잖아요’	서술문	*-잖습니다
4	담화표지 새로운 정보제시	있잖아요 -잖아요.		화자의 친밀감 형성 의도
5	혼잣말	어 -잖아?		
6	비난, 못마땅, 따짐	‘-지 있습니까?, -지 않아요?, -잖아요?’	의문문(하강)	

<표 5> 교재의 단계별 제시 방안

6. 마무리

본고는 부정표현 ‘-지 않다’와 그 축약형 ‘-잖다’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한국어교육의 문형교수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코퍼스 분석을 통해 이들의 변별적 특성 여부를 고찰해 보고, 이러한 특성을 한국어 교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다. 이들은 본딴말과 축약표현의 형태에서 시작해서 점차 용법을 달리해 가면서 변별적 환경에서 사용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통사적으로는 변별이 어렵더라도 언어교수 현장에서는 개별적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둘째는 코퍼스 분석을 통해 개별 문형이 가지는 다양한 화행적 특성을 살피고자 했다. 축약표현 ‘-잖다’는 혼잣말 형태의 자기 확인에서부터, 타인의

의사에 대한 확인, 타인 견해에 대한 정정, 타인에 대한 못마땅함, 비난, 충고의 전략으로 확대해 갔으며, 자신의 견해에 대한 타인의 동조 구하기, 공유라는 친밀감을 전제로 하여 자기 설명을 통한 화제 유도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하지만 사전 분석이나 교재 분석을 볼 때, 이러한 ‘-잖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필자는 ‘-잖다’를 단순히 부정표현의 축약표현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명시적인 문형 제시와 예문 제시를 통한 교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기본 의미에서 전략적 의미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은 비단 ‘-지 않다’와 ‘-잖다’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을것을→을걸, 다고 한다→단다, 다고 해요→다고요’ 등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축약은 단순한 줄임말이 아닌 새로운 문법화의 경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문어문법과 구분되는 구어문법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화행적 특성이 교수 현장에서 구현된다면 어떤 단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는 구어 코퍼스와 문어 코퍼스를 비교 분석을 통해 ‘-지 않다’와 축약 표현인 ‘-잖다’의 사례를 들어 본딴말과 축약표현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 축약표현이 선호되는 구어에서 축약표현이 독립적인 지위를 얻어가면서 의미적, 통사적, 화행적 특성이 변이해 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현행 한국어 문법 교수에 있어 문어문법과 구어문법의 변별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두 문법은 별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그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구어 의사소통을 주로 다루는 언어교육에 있어서 구어문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어문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축약표현의 구어문법적 특성을 인지하고 이를 교수에서 활용하는 것은 향후 한국어 문법 교수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 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1쪽-26쪽.
- 손세모달(1999), ‘-잖-’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 Vol.33 No.1, 국어학회, 213쪽-240쪽.
- 이재현(1999), 부정축약형 ‘-잖/잖-’의 형성과 기능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 Vol.2,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89쪽-102쪽.
- 이현희(2004), “-잖-”은 단지 “-지 않-”의 음운론적 축약형인가?, 한국어학 23, 한국어학회, 203쪽-228쪽.
- 정원수(1988), 부정형태 ‘잖(잖)’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Vol.- No.100, 국어국문학회.
- Hinkel, Eli(2001), “Building Awareness and Practical Skills to Facilitat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n Marianne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uage*. 3rd edition, Heinle & Heinle. pp.430-443.
- Ellis, R(1984), *Second Language Classroom Development*. Oxford.
- Lock, Graham(1996), *Functional English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1.
- Ymiko Kawanishi & Sohn Sung-Ock(1993), grammaticization of Korean negation: a semantic-pragmatic analysis of -can-a(yo). In Susumu Kuno, John Whitman, Ik-Hwan Lee, Joan Mailing and Young-joo Kim(eds.) *The Fifth Harvard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n Linguistics*, 552-561. Cambridge, MA: The Harvard ISOKL committee.
- Bach, Kent(1981), “Escaping the Speech Act Dilemma” Analysis. JSTOR Archive Vol 41. No 3. pp.146-149.
- Carr, R (1980), “A Speech Act Dilemma” Analysis. JSTOR Archive Vol 40. No 3. pp.163-168.
- Suh, Kyung-hee(2001), Language Socialization through Sentence-ending Modal Particles, -ci and -cianha in Korean Caregiver-child Interaction, *사회언어학*, Vol.9 No.1, pp.237-258.
- Suh, Kyung-hee(2002), The Korean Sentence-final Marker cianha in Conversational Discourse, *사회언어학*, Vol.10 No.2
- Tanaka, N. (1988), Politeness: Some problems for Japanese speakers of English, *JALT Journal* 9, pp.81-102.

[사전류]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백봉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서상규 외(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0-749
전화번호: 02-2123-5270(연구실)
전자우편: khang@yonsei.ac.kr

원고 접수일: 2009년 3월 6일
원고 수정일: 2009년 4월 20일
게재 확정일: 2009년 4월 22일